

南冥 曹植의 現實認識과 對應

정진영*

• 目 次 •

1 머리말	4 부정적 현실의 극복 방안
2 16세기의 현실과 남명	5 의의와 한계
3 남명의 현실인식	6 맺음말

1. 머리말

최근 남명에 대한 연구는 아주 활발하고, 또 많은 성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문학이나 철학, 또는 교육학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진 성과이다 여기에 비해 역사학에서 남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성과는 그리 많지 않다¹⁾

남명의 삶은 재야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일관하였고, 또 학문의 실천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스스로 문자로 남긴 것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詩文과 簡札類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官撰史料 상에서도 구체적인 활동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역사연구에 절실히 필요한 자료가 한정되어 있다 이같은 문제가 역사학의 남명학 연구를 주저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남명에 대한 역사학계의 관심이 적었던 것은 다만 자료의 부족이라는 측면에서만은 아니다 그것은 그간 역사학계의 연구풍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역사학계는 오랫동안 중앙의 정치와 제도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다시 말해 지방 또는 鄉村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었다 남명에 대한 접근 방법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미이다

남명은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경상우도에서 보냈다 이것은 남명의 정치적·학

* 동명정보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1) 최근의 남명에 대한 연구목록에 따르면, 총 연구편수는 170여 편에 이른다(정우락, 1998 <남명문학의 철학적 접근> 부록 <남명학 관련 연구 논저 목록> 참조, 박이정) 이 가운데 역사학 분야의 연구는 서너 편에 불과하다 그것도 사상분야를 빼면 다음 이수건 교수의 몇 편의 연구가 거의 전부인 것으로 보인다

이수건 1982 <남명 조식과 남명학파> <민족문화논총>2 3합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_____ 1988 <남명과 남명학파> <경남문화연구>11,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소

_____ 1995 <남명학파와 남명조식> <남명 조식의 사상과 문학> 동방한문학회

문적인 위치가 향촌사회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그의 삶과 활동의 일차적 기반이 바로 향촌사회였다는 것이다 15세기이래 士林派의 가장 큰 관심사는 향촌사회에 있었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이다 남명은 이같은 사람과의 전통을 계승 또는 이끌어 가는 입장에 있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존의 남명 관련 문자로는 이와 관련된 언급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것은 동시대를 함께 살았던 退溪 또는 栗谷과 비교된다는 점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²⁾ 연구자들 관심 또한 여기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졌지만, 미처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였다

남명이 역사학계에서 크게 조명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남명 이후의 정치적 또는 학문적인 측면도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鄭仁弘의 복인정권이 부정되면서, 그리고 “自成一家之學”³⁾을 이룬 남명의 학통 또한 당시의 주류 성리학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70~80년대의 정치적인 격변기를 거치면서 남명의 생애와 활동은 비판적 지식인의 전형으로서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역사적인 입장에서보다는 사상, 문학, 교육적인 측면에서였다 이같은 연구에서 얻어진 성과를 본고의 관심과 관련하여 요약한다면, 이제 남명의 평가는 비판적 실천적 지식인으로서의 모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혁의 방안을 제시한 인물⁴⁾ 또는 실학자적인 면모의 발견⁵⁾ 등에까지 이르고 있다

역사 연구가 시대의 요구를 전적으로 외면할 수만은 없다 때문에 사회 모순에 대해 통렬히 비판한 지식인의 전형으로서의 남명이 1970~80년대의 요구였다면, 오늘날의 요구는 여기에 만족해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사회 모순의 고발과 비판을 넘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해결책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혁 방안과 실학과 관련하여 전개되고 있는 최근의 연구성과는 주목된다

2) 퇴계와 율곡의 향촌사회에 대한 관심은 향약의 실시와 서원의 건립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정진영, 1986 <16세기 향촌문제와 재지사족의 대응 -'예안향약'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7,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_____, 1989 <예안 역동서원의 연구> 《안동문화연구》3, 안동문화연구회

김무진, 1983 <율곡 향약의 사회적 성격> 《학림》5, 연세대 사학회

3) 정인홍과 허목의 남명 <行狀>

4) 정우락, 1998 《남명문학의 철학적 접근》 박이정

신병주, 1999 <조선중기 처사형 사람의 학풍 연구 - 남명학과 화담학과를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5) 권인호, 1997 <남명학파의 실학사상연구> 《남명학연구논총》5 (진주, 남명학연구원)

葛榮晉, 1998 <남명의 실학사상연구> 《남명학연구논총》6

조평래, 1988 <남명사상의 실학적 성격> (경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들의 실학 개념, 또는 남명의 실학사상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즉, 조평래는 “民本의 이고 敬·義를 바탕으로 하는 經世有用”을, 권인호는 “유교사상의 근본 宗旨라고 할 수 있는 ‘修己治人’에서 그 궁극적 목적인 ‘治人’을 실학이라고 하였다 갈영진은 남명의 실학사상이 “주로 實體論과 實修論·經世論”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실학으로서의 남명학이 유학 또는 이를 실천하고자 하였던 일반적인 유학자들과의 차별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엄밀한 검토는 보이지 않는다

이 글의 또 다른 관심은 남명이 당시의 사회 모순을 비판하면서 제시한 해결책과 이것이 가지는 의의와 한계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역사적 조건을 뛰어넘기란 어렵다. 그런데 인물연구에서는 간혹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물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다. 학문연구에서 이 점은 경계되어야 한다. 또한 역사는 자료로서 말해야 함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필자가 관심을 가지는 문제에 대한 자료는 사실상 《남명집》에 산견되는 극히 제한된 내용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과의 비교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부가 미숙한 필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이 글은 필자가 제기한 문제에 대한 극히 시론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2. 16세기의 현실과 남명

대체로 연산군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되는 16세기는 15세기를 중심으로 정비되었던 사회체제에 많은 문제점을 들어내는 시기이다. 그것은 지배층의 분열이나 왜란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닌 정치·사회·경제 등 사회전반에서 유기적으로 전개되는 것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勳舊와 士林세력의 정치적 갈등에서 전개된 土禍와 농민의 流亡, 그리고 倭亂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훈구세력은 세조가 정권을 장악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많은 功臣을 만들어 낸 이후, 새 군주가 즉위하면 공신을 책봉하는 것이 관례가 됨으로써 그 세력이 크게 늘어났다. 이들은 기득권세력으로 권익 유지에 급급하였고, 상당수는 불법과 비리를 자행하고 있었다. 기존의 토지에다 공신전과 노비까지 하사 받아 엄청난 대토지를 확보하였고, 또 개간과 고리대로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갔다. 이들은 또한 관권의 비호 하에 농민을 불법으로 사약하거나, 防納에도 관여하여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이들과는 달리 성종 대부터 비로소 중앙정계에 등장하기 시작한 초기의 사림세력은 국가와 왕실에 대한 공로, 정치적 지위 및 경륜, 사회경제적 기반 등 그 어느 것에서도 훈구세력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사림세력은 대부분 소규모의 農庄을 소유한 중소지주였고, 자영농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었으며, 노비 노동력을 보유했어도 많은 부분을 양인 농민의 노동력에 의존했다. 이들은 훈

구세력에게 토지와 노비가 집중되고 조세제도 등의 문제로 농민이 유리·도망하는 사회현실에 위기의식을 갖고 이를 주목하였다

이같은 위기는 훈구세력을 견제하거나 압도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해 사림의 정치적 성장에서 극복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사림세력은 훈구파의 견제와 그들의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적극 활동하였는데, 이들의 활동을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훈구파의 비리와 비행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며, 둘째는 다양한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었고, 셋째는 향촌사회에서 그들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었다 직접적 비판이 방납을 통한 비행, 토지의 겸병, 공권력을 통한 농민의 사역 등에 대한 것이라면, 井田論·均田論·限定口數論 등의 제기, 防納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모색, 王道政治의 실현을 통한 사회개혁의 추진 등은 사림세력이 추진한 개혁정책이었다 한편 유향소 복립운동, 향약의 보급과 실시, 서원의 건립운동 등은 훈구파의 중앙집권적 향촌정책을 배격하고 향촌사회를 그들의 세력기반으로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림세력의 활동은 훈구세력의 반격으로 번번이 실패 좌절되고 말았으며, 더욱이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그러나 거듭되는 사회에도 불구하고 사림세력의 성장은 꾸준히 진행되었다

그것은 이러한 사림파의 활동이 현실적 명분을 확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개혁의 추진이 정치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거듭되는 士禍는 많은 학자들을 山林으로 끌어들이어 處士의 삶을 선택하게 하고 이들을 정치참여 보다는 학문탐구와 학문의 실천문제에 전념케 하였고, 또한 향촌사회에서 사회경제적인 기반을 확고히 함과 아울러 사림적 분위기를 크게 확산시켜 나갈 수 있게 하였다 즉, 현실적 명분의 확보, 성리학의 학문적 발전, 향촌사회에서의 기반확보와 사림적 분위기의 확산 등은 결국 선조 이후 정국을 그들 중심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이다 아무튼 선조의 즉위와 더불어 사림은 정치 주도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실제로 이들의 정계진출이 활발하게 전개됨으로써 한편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갔다

남명 또한 이같은 정치적 상황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사림파의 정치적 학문적 전통을 계승하거나 이끌어 가는 연장선상에서 성장·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조 이후의 일반적인 경향과는 달리 남명의 현실은 여전히 “탄식하고 울먹이다가 잇달아서 눈물을 흘리”⁶⁾거나, “낮에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하고 밤에는 천장만

6) 《南冥集》〈戊辰封事〉254쪽 “臣索居深山 俯察仰觀 嘘唏掩抑 繼之以淚者 數矣”(경상대 남명학연구소 편역본, 이상과 실천사)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남명집》은 모두 이를 이룬 것이며, 쪽수는 번역문을 기준으로 하였다

처다”⁷⁾보는 비관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깊은 산중에 살면서 굶어 살피 본 民情 때문이었다 남명은 “민생의 곤궁함을 염려하여 아픈 병이 자기 몸에 있는 듯 하였고, 회포가 쌓여 말이 목에 메이기도 하였고”,⁸⁾ “홀로 앉아 슬프게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가 끝나면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⁹⁾던 것이다

16세기의 역사현실에서 두드러진 것은 바로 이같은 民生의 문제였다 이것은 民의 流亡으로도 표현되는 것이었다 民의 유망은 “나라가 흐트러지고 망하는 禍根”¹⁰⁾이거나, 백성들이 나라를 엎어버리는 民巖의 원인으로 이해되듯이 심각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왕조정부의 존립문제와 직결되고 있는 것이었다

아무튼 民의 유망은 16세기의 중요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면 이러한 民의 유망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이 같은 문제를 우선 향촌사회의 구체적인 사정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 구체적인 예는 1557년(명종 12)과 1579년(선조 12)의 충청도 단양군수가 보고한 내용이다 우선 1557년의 보고에 따르면 당시 단양군의 良民戶는 40호에 불과했고, 軍丁은 원래 배정된 26명에서 13명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고 한다¹¹⁾ 이것을 백여 년 전의 『세종실록지리지』(1450년 경)의 단양군의 사정, 즉 양민호 235호와 비교해 보면 도리어 엄청나게 감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民의 유망으로 빚어진 결과였다 이같은 民의 유망은 당시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던 軍布와 貢物 등 부세부담의 과중 때문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民의 유망이 그 자체로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民이 다름 아닌 國役과 軍役의 담당자라는 점에서 이들의 유망은 곧 국가재정과 軍額의 감소와 직결되는 것이었고, 향촌사회의 차원에서는 이들의 담당해야 할 부세와 군역이 아직 유망하지 않은 양민호에 가중됨으로써 유망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¹²⁾ 民의 유망에 따른 이같은 사정은 약 20년 뒤의 보고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1579년의 보고서에는 1557년의 사정을 언급하면서 그 이후에 유망한 사람과 이로써 생긴 목발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장차에는 民

7) 《南冥集》〈乙卯辭職疏〉243쪽 “臣所以長想永息 晝以仰觀天者 數矣 噓唏掩抑 夜以仰看屋者 久矣

8) 《南冥集》〈言行總錄〉(아세아문화사 영인본) 182쪽 “念生民困悴 若恫瘝在身 懷抱委贖 言之或至鳴噓”

9) 成運, 《大谷集》 하권, 〈南冥先生墓碣〉 “不能忘世 憂國傷民 每值脩宵皓月 獨坐悲歌 歌竟涕下

10) 《陶山全書》I 〈戊辰經筵啓劄〉(1568년) 187쪽 (정신문화연구소 간) “今人狃昇平 不知國家亂亡之禍 率由於民巖 雲合土崩之勢 恒起於民流”

11) 黃俊良 《錦溪集》 권 4, 〈陳民弊十條疏〉
《명종실록》 권 22, 명종 12년 5월 기미조

12) 정진영 앞의 논문 참조

이 한 사람도 남지 못하게 될 것임을 걱정하고 있다¹³⁾

이같은 사정은 단양군의 경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비슷한 시기의 경상도의 언양현의 경우도 그러하였고,¹⁴⁾ 그리고 이같은 보고서를 접한 史臣이 “한 고을의 폐단을 통해 360州를 추측한즉 그러하지 않는 곳이 없다”¹⁵⁾라고 한 것에서, 또는 “옛날의 100호 촌이 지금은 혹 3·40家로 줄어 들었다”,¹⁶⁾ “백리간에 이르도록 煙火를 볼 수 없다”¹⁷⁾는 사정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름만의 군대가 있을 뿐 실제로는 없는 것인데, 이러한 사정은 京鄕이 마참가지”¹⁸⁾였던 것이다 남명 또한 이같은 사정을 “수십 년이래 백성 군사 할 것 없이 離散하여 閭里가 텅 비었다”¹⁹⁾고 하였다 이같은 현실에서 왜란을 맞이하게 된 조선사회는 일거에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아무튼 우리는 민의 유망이라는 16세기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명은 “백성과 군졸이 유망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보호하지도 못하는 현실”²⁰⁾을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이같은 원인은 바로 “行政의 번거로움과 세금의 과중”²¹⁾에 있었다 민의 유망이 본격화 한 것은 주로 연산군 이후 훈구세력의 집권기에 자행된 것으로 이해된다 훈구세력은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많은 비리와 부정을 자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민을 유망케 한 근본원인으로 지적되는 번거로운 행정과 과중한 세금은 다름 아닌 이들의 弊政에서 기인하였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유망한 민은 어디로 갔을까?

유망한 농민의 대부분은 사실상 달리 삶의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농촌사회에 재편성될 수밖에 없었다 훈구세력이 대토지 소유와 여기에 걸 맞는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사립세력 역시 중소지주적 존재로서 일정한 토지와 노비를 확보하고 있었다 사람의 이러한 경제적 기반은 주로 16세기를 거치면서 확보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시 향촌사회의 민의 유망은 다만 훈구파의 폐정에서만이 아니라 사립파의 향촌사회에서의 경제활동에서도 결과하는 것이었다²²⁾ 즉, 사립파는 향촌사회 지배층으로서 그들 자신의 경제적 기반 확보에 적극적이었고,

13) 黃應奎, 《松濶集》 권 3, 〈丹陽郡陳弊疏〉

14) 林薰, 《葛川文集》 권 2, 〈彦陽陳弊疏〉 1567년

15) 《명종실록》 권 22, 명종 12년 기미조

16) 《명종실록》 권 32, 명종 21년 4월 무인조

17) 《명종실록》 권 32, 명종 21년 5월 임인조

18) 李滉, 《陶山全書》1, 〈戊辰經筵啓劄〉 187쪽

19) 《명종실록》 권 33, 명종 21년 10월 갑자조

20) 《南冥集》〈遊頭流錄〉 285쪽 “政煩賦重 民卒流亡 父子不相保”

21) 위와 같음

22) 정진영, 앞의 논문, 참조

이러한 모습은 훈구세력이나 중앙권력으로부터, 또는 그들 자신들로부터도 武斷士豪로 규정되고 있었다²³⁾

아무튼 사림세력은 향촌의 중소지주로 16세기에 상당한 량의 田民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민은 부·모와 처변을 통한 상속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에서는 흉년이나 세금으로 몰락하는 농민들의 投託을 통해, 또는 이들의 전답을 헐값에 사들이거나 노비화 함으로써 또는 그들 소유의 노비를 良人과 交婚시킴으로써 얻어진 것이었다 이것은 사림이 급격한 숫적 증가와 자녀균분상속으로 인한 田民의 재분배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중소지주로서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해 갈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 따라서 훈구 뿐만 아니라 사림 또한 결과적으로 국역체제의 기반을 해체·파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었던 셈이다 다시 말해 민의 유망 결과는 한편에서는 사림에 의한 토지집적과 私賤증가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이것은 곧 국가의 公田과 公民의 占奪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양민의 奴婢化로 장차에는 양민이 없어지는 데에까지 이를 것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은²⁴⁾ 바로 이같은 사정을 보여준다

또한 향촌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던 민의 유망, 이것의 원인이고 결과이기도 하였던 사림의 전민증식은 한편에서는 하층민의 저항을, 다른 한편에서는 왕조정부와의 마찰을 야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은 어느 경우나 향촌사회에 기반을 둔 사림세력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 시기 개별 향촌단위에서의 실시되고 있던 鄉約, 洞約·洞契 등은 이같은 문제를 재지사족 중심으로 해결하고자 한 노력의 일단이었다 퇴계와 율곡에 의한 향약류의 실시는 그 좋은 예이다 이들 향약이 사림 자신에 대한 자기규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였다²⁵⁾

3. 남명의 현실인식

남명이 당시의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전후 4차에 걸친 상소와 한 차례의 進言에 잘 나타나 있다 4차의 상소는 곧 1555년(명종 10)의 단성현감에 임명된 뒤에 올린 <乙卯辭職疏>, 1567년(선조 즉위년) 갓 즉위한 선조의 出仕特

23) 당시 많은 사림계 인사들이 土豪로 취급받아 처벌당하기도 하였다 (이수건, 1979 『영남사림과의 형성』 12쪽) 1615년 안동부의 鄉規인 <新定十條> 이후에 마련된 <追錄>에서는 武斷士豪로서의 재지사족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정진영, 1998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109쪽, 한길사 참조)

24) <중종실록> 권 32, 중종 13년 2월 경인조
'柳氏曰 或壓良爲賤 其弊將至於無良民矣'

25) 정진영, 앞의 논문, 참조

旨을 받고 올린 〈丁卯辭職呈承政院狀〉(이하 정묘소라 한다)²⁶⁾과 1568년(선조 1) 5월의 〈戊辰封事〉, 그리고 1571년(선조 4) 선조가 식물을 하사한데 대한 사은소인 〈謝宣賜食物疏〉(이하 식물소라 한다)이다. 進言은 1565년(명종 20) 문정왕후가 죽고 윤형원이 실각되어 명종의 친정이 시작된 후 尙瑞院 判官을 제수받고 명종을 親對하여 爲學之方과 治國之道를 물은 데 대하여 대답한 것을 말한다.²⁷⁾ 여기서 우선 주목할 문제는 남명의 상소가 명종 대에서 선조 대에 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다만 시간적인 경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주도세력이 勳戚에서 士林으로의 교체됨을 말한다. 또한 선조의 즉위기에는 사람이 비로소 정국을 주도함에 따라 낙관적인 분위기가 팽배하였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아무튼 이를 통해 남명이 당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보도록 한다.

가) 전하의 나라 일이 이미 그릇되어서, 나라의 근본이 이미 망했고, 하늘의 뜻은 가버렸으며, 인심도 이미 떠났다. 비유하자면, 큰 나무가 백년동안 벌레가 속을 먹어 진액이 이미 말라 버렸는데 이 지경에 이른 지가 오래된다. 그 형세가 극도에 달하여 지탱할 수 없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손쓸 곳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낮은 벼슬아치는 주색만을 즐기고, 높은 벼슬아치는 오로지 재물만을 늘리며 물고기의 배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데도 그것을 바로 잡으려 하지 않는다. 게다가 궁궐 안팎의 신하들은 후원하는 세력을 심거나 백성들을 수탈하는 데만 급급할 뿐이다. 慈殿은 궁중의 한 과부에 지나지 않고, 전하는 어리니 천 가지 백 가지 天災와 억만 갈래의 人心을 무엇으로 감당해 내며 무엇으로 수습하겠는가? 넷물이 마르고 좁쌀비가 내리며, 노랫가락이 구슬프고 입는 옷이 흰색이니 그 조짐이 무엇이겠는가?²⁸⁾

나) 나라 근본은 쪼개지고 무너져서 물이 끓듯 불이 타듯 하고, 신하들은 거칠고 게을러서 시동 같고 허수아비 같다. 기강이 없어졌고, 원기가 나른해졌으며, 예의가 없고 刑政이 온통 어지러워졌다. 선비들의 습속은 허물어졌고, 公共의 도리가 없어졌고, 사람을 쓰고 버리는 것이 온통 뒤섞였고, 기근이 갈 데까지 갔고, 창고는 고갈되었고, 제사는 더럽혀졌고, 세금과 공물은 멋대로 이고, 변경의 방어는 텅 비

26) 〈정묘소〉는 1567년에 올린 것인데, 왕조실록에는 1571년(선조 4) 5월 병자조에 수록되어 있다 (《남명집》 247쪽 주 27) 참조) 〈식물소〉에서 “지난 해 신이 두 번이나 거친 글을 올려 ”라고 하였으니, 〈정묘소〉는 1567년에 올린 것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27) 남명은 명종 21년 7월에 부름을 받았으나 입궐하지 않았으나, 8월에 상서원 판관에 제수되자 10월에 入對하였다 (《명종실록》 권 33 명종 21년 10월 갑자 조)

28) 《南冥集》〈乙卯辭職疏〉 243쪽

“抑殿下之國事已非 邦本已亡 天意已去 人心已離 比如大木 百年虫心 膏液已枯 茫然不知飄風暴而何時而至者 久矣 在廷之人 非無忠志之士夙夜之士也 已知其勢極而不可支 四顧無何手之地 小官嬉嬉於下 姑酒色是樂 大官泛泛於上 唯貨賂是殖 河魚腹痛 莫肯尸之 而且內臣樹援 龍攀于淵 外臣剝民 狼恣于野 亦不知皮盡而毛無所施也 慈殿塞淵 不過深宮之一寡婦 殿下幼仲 只是先王之孤嗣 天災之百千 人心之億萬 何以當之 何以收之耶 川渴而粟 其兆伊下 音哀服素 形象已著”

었다 뇌물이 만연하고, 남을 헐뜯는 풍조와 원통함, 사치가 극도에 달했고, 공헌이 통하지 않고, 夷狄이 업신여겨 쳐들어오니, 온갖 병통이 급하게 되어 하늘 뜻과 사람의 일도 예측할 길이 없게 되었다²⁹⁾

다) 예로부터 권신으로서 나라를 마음대로 했던 일이 있기도 하고, 戚里로서 나라를 마음대로 했던 일이 있기도 하였으며, 부인과 환관으로서 나라를 마음대로 했던 일은 있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胥吏가 나라 일을 마음대로 했던 일이 있었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정권이 대부에게 있어도 오히려 옳지 못하는데, 하물며 서리에게 있어서야 되겠는가?³⁰⁾

라) 전하의 나라 일이 이미 글러 한 가닥도 손댈 곳이 없는데, 모든 관원은 둘러서서 보기만 하고 구원하지 않는다 이미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은 지가 오래 되었다³¹⁾

가)는 문정왕후와 윤형원으로 연결된 척신정치기에 사람에게 화를 입히고 난 뒤 민심을 수습하고 士類를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遺逸登用이라는 허명으로 남명을 단성현감에 임명한 것에 대해 남명이 그 유명한 '과부론'으로 사직소를 올린 것이다 말하자면 척신정치의 폐해를 극렬하게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척신정치로 말미암아 나라의 근본이 망했고 천심과 인심도 떠나버려, 더 이상 손쓸 볼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벌레가 속의 진액을 다 빨아먹어 말라버린 고목에 비유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되었다고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함에도 어느 누구 없이 바로잡으려 하지 않으며,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왕은 어리고 후견자인 문정왕후는 일개 과부에 불과하니 천재와 인심의 이반을 감당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하니 멸망의 조짐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말하자면 당시의 현실이 과히 절망적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명종 20년 문정왕후가 죽고 윤형원의 실각, 그리고 곧 이은 선조의 즉위는 척신정치의 청산을 가져왔다 남명은 이러한 정세 속에서 한 때 희망을 갖고 상경하여 명종을 대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곧 하향하고 말았다 또한 선조의 즉위와 더불어 사람의 정치가 본격적으로 전개

29) 《南冥集》〈丁卯辭職呈承政院狀〉 247쪽

邦本分崩 佛如焚如 群工荒廢 如尸如偶 紀綱蕩盡 元氣蕭盡 禮義掃盡 刑政亂盡 士習毀盡 公道喪盡 用捨僞盡 饑饉荐盡 府庫竭盡 饗祀廢盡 徵貢橫盡 邊圉虛盡 賄賂極盡 掎克極盡 冤痛極盡 奢侈極盡 飲食極盡 貢獻不通 夷狄凌加 百疾所急 天意人事 亦不可測也”

30) 《南冥集》〈戊辰封事〉 251쪽

“自古 權臣專國者 或有之 戚里專國者 或有之 婦寺專國者 或有之 未聞有胥吏專國 如今之時者也 政在大夫 猶不可 況在胥吏乎”

31) 《南冥集》〈辭宣賜食物疏〉 256쪽

‘伏見殿下之國事已去 無一線下手處 諸臣百工 環視而莫救 已知無可奈何 不曰如之何者 久矣’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명이 보는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나) 다) 라)는 선조의 등극 이후에 올린 것으로, 이같은 사정을 잘 보여 준다

나)에서는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어서 손뼉 곳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와 사회 기강의 문란, 인사제도의 문제, 국고의 탕갈, 이적의 침략 등을 말하고 있다

다)는 남명이 새로 등극한 선조에게 군주의 爲學治國의 근본과 君臣관계 및 善政에 필요한 그의 治政觀을 피력한 것인데, 위에 제시한 것은 이른바 ‘鄉吏亡國論’의 일부이다 천한 서리가 국정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지적했던 척신정치의 폐단보다도 더욱 심한 것이다 “서리와 온갖 관리가 한 무리가 되어 나라의 심장부를 차지하고 앉아 國脈을 결단내고 있기”³²⁾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은 더욱 절망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民情을 굽어살피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하고 울먹이다가 눈물을 흘리지”³³⁾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라)는 음식물을 내리는 선조의 하교를 받고 감사드리는 글이지만, 도리어 음식을 하사할 것이 아니라 “임금이 의를 실행할 것(君義)”을 촉구하고 있다 남명의 부정적 현실인식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것도 이미 글러 버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조차 않은 지가 오래 되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남명이 보는 현실은 총체적 위기에서 오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총체적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을묘사직소>의 입장, 즉 척신정치의 폐해를 극론한 것에서 본다면 그 원인은 척신정치에서 찾아진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척신정치가 청산된 사람의 집권기에도 남명의 인식이 달라진 것이 없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달리 찾아져야 한다 관리들의 안일과 탐학, 國脈을 결단내는 향리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오직 군주 한 사람에게서 기인하는 문제였다 남명의 이같은 생각은 <民巖賦>에 잘 나타난다 장황하지만 중심되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³⁴⁾

가)		
백성이 물과 같다는 말은,		民猶水也
예로부터 있어 왔으니,		古有說也
백성은 임금을 받들기도 하지만,		民則戴君
백성은 나라를 덮어 버리기도 한다		民則覆國
나)		

32) 《南冥集》〈戊辰封事〉 252쪽 “小吏爲盜 百司爲群 入據心胸 賊盡國脈”
 33) 《南冥集》〈戊辰封事〉 254쪽 “臣索居深山 俯察仰觀 嘘唏掩抑 繼之以淚者 數矣”
 34) 《南冥集》〈民巖賦〉 112-116쪽

아아, 축산의 험함이	嘻噓哉蜀山之險
어찌 임금을 넘어뜨리고 나라를 엮을 수 있으리오?	安得以憤君覆國也哉
그 암험함의 근원을 찾아보면,	究厥巖之所自
진실로 임금 한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않는다	實不外乎一人
한 사람의 불량함에 말미암아,	由一人之不良
여기서 위험이 가장 크게 된다네	危於是而甲仍
궁실이 넓고 크은,	宮室廣大
암험함의 시작이요 (생략)	巖之興也
형벌을 자행함은,	刑戮恣行
암험을 돌이킬 수 없게 함이다	巖之固也
다)	
비록 그 암험함이 백성에게 있다지만,	縱厥巖之在民
어찌 임금의 덕에서 말미암지 않겠는가?	何莫由於君德
물은 河海보다 더 큰 것이 없지만,	水莫險於河海
큰 바람이 아니면 고요하고,	非大風則妥帖
암험함이 민심보다 더 위태로운 것이 없지만,	險莫危於民心
포악한 임금이 아니면 다 같은 동포인 것을!	非暴君則同胞

즉, 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지적되듯이 물로 비유되는 백성들이 임금을 받들기도 하고 나라를 엮어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나)에서는 이같은 민암이 임금 한 사람의 실정에서 말미암음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궁실의 넓고 큼, 女謁³⁵⁾의 성행, 기준 없는 세금정수, 도에 넘치는 사치, 掎克³⁶⁾의 자리함, 형벌의 자행을 실정의 구체적인 예로 들고 있다 다)에서는 암험해 지는 것은 백성들이지만, 이것은 임금의 덕과 직결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부정적인 현실의 극단적인 결과인 민암, 곧 임금을 넘어뜨리고 나라를 뒤엎어 버리는 험함이 생기는 원인은 진실로 군주 한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의 험함은 君德의 여부에 달린 것이라고 했다 결국 척신정치의 폐해, 관의 안일, 나아가서는 서리들의 국정 농단 등 모든 문제가 군주 한 사람의 덕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문제였다 그러나 척신이나 관료의 안일과 탐학은 부정적 현실을 배태하는 종속적인 요소에 불과한 것이었고, 또한 훈구와 사림의 교체가 국가의 治亂을 좌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요인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주목하고자 하였던 훈구와 사림의 교체가 그의 현실인식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현실인식의 긍정·부정이 척신이나 안일한 관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군주에게 달린 문제였기 때문이다 다음의 시³⁷⁾에

35) 여알이란 임금의 총애를 틈 타 妃嬪이나 궁녀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6) 부극이란 백성의 재물을 수탈하는 데 혈안이 된 사람을 뜻한다

37) 《南冥集》〈無題〉43쪽

서 남명의 부정적 현실인식이 어디에서 오는 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魯나라 들판에서 麒麟은 헛되이 늙어가고,
岐山엔 봉황새도 날아오지 않네
빛나던 문물도 이제 끝장이니,
우리의 道는 누굴 의지해야 하나?

魯野麟空老
岐山鳳不儀
文章今已矣
吾道竟誰依

기린이나 봉황이 성군을 의미함은 자명하다 남명은 기린은 노나라의 들판에서 늙어가고 봉황은 기산에 날아들지 않는다고 하여 聖王의 不在와 이로 말미암아 의지할 곳조차 없게 된 현실을 한탄하고 있다 즉, 남명은 그의 시대를 성왕이 부재한 현실로 본다 따라서 남명의 부정적 현실인식은 덕을 갖춘 군주가 없는 데서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4. 부정적 현실의 극복 방안

1) 聖君論

앞에서 남명의 현실인식이 부정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도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재주가 周公과 召公을 겸하고 지위가 정승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³⁸⁾고 했다 그렇다면 이같은 부정적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남명은 이같은 현실에 필요한 것은 개혁임을 절절히 역설하고 있다 남명은 개혁의 시급함을 ‘救急’³⁹⁾이라 표현하기도 하였고, 명종을 면대하여서는 “획기적인 변통이 없이는 난국을 수습할 수가 없다”⁴⁰⁾고도 하였다 획기적인 변통이란 곧 “칠년 가뭄에 시들어진 풀을 윤기나게 하는 큰 장마비”와 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남명이 현실극복 방안으로 제시한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가?

가) 근위병을 불러모으고 나라 일을 정돈하는 것은 자질구레하게 형벌을 정하는 데에 있지 않고 오직 전하의 한 마음에 달려 있다 전하가 학문을 좋아하는지 풍류를 좋아하는지, 그 좋아하는 바에 나라의 흥망이 달려 있다 전하가 진실로 어느 하루 깜짝 놀라 깨달아, 팔을 걷어붙이고 학문에 힘쓰면 홀연히 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하는 도리 안에 온갖 선이 갖추어지게 되고 온갖 德化도 이로 말미암

38) 《南冥集》〈乙卯辭職疏〉244쪽 “當此之時 雖有才兼周召 位居鈞軸 亦末如之何矣”

39) 《南冥集》〈丁卯辭職呈承政院狀〉247쪽

40) 《明宗實錄》 권 33, 명종 21년 10월 갑자조

아서 나오게 된다 이것을 들어서 시행하면 나라는 다 잘 살게 할 수 있고, 백성은 화합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태로움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 앞드려 원하옵건대, 전하는 반드시 마음을 바로 하는 것으로써 백성을 새롭게 하는 요점으로 삼고, 몸을 수양하는 것으로써 사람을 쓰는 근본으로 삼아 王道의 법을 세우시라. 왕도의 법이 왕도의 법답지 않으면 나라가 나라답게 되지 못한다⁴¹⁾

나) 백성을 잘 다스리는 요점은 임금이 선을 밝히고 몸을 정성 되게 하는 데에 있을 뿐이다. 선을 밝힌다는 것은 이치를 궁구함을 이름이요, 몸을 정성 되게 한다는 것은 몸을 닦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공부는 반드시 敬을 위주로 해야 한다. 경을 주로 하지 않으면 마음을 간직할 수 없고, 마음을 간직하지 못하면 천하 이치를 궁구할 수 없으며, 이치를 궁구하지 못하면 사물의 변화를 다스릴 수가 없다⁴²⁾

가)에서는 백성이 흩어지고 軍丁이 격감한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여 나라를 잘 살게 하고, 백성을 화합하게 하고, 위태로움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방법이란 자질구레한 형벌을 정하는 데에 있지 않고 오직 군주 한 사람이 학문에 힘써 덕을 밝히려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군주가 진실로 어느 하루 깨달아 학문에 힘써 聖君이 된다면 주공·소공도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이라도 금방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에서는 백성을 다스리는 요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백성들은 7년 기근에 이미 시들어져버린 상태다. 이런 백성을 잘 다스려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군주가 敬을 위주로 하여 善을 밝히고 몸을 정성 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 아래로 나라가 저절로 다스려 지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우레가 치면서 소낙비가 쏟아져 천지가 해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였다⁴³⁾. 그렇지 않고 "다스려지기를 구하는 것은 배 없이 바다를 건너는 것 같아서, 다만 저절로 빠져 죽을 뿐"⁴⁴⁾이라 하여 군주의 수양을 강조하고 있다.

남명은 부정적인 현실의 근원을 군주에서 찾듯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 곧 개혁의 주체도 군주에서 찾고 있음이 분명하다.

41) 《南冥集》〈乙卯辭職疏〉245-246쪽

號召勤王 整頓國事 非在於區區之政刑 有在於殿下之一心 好學問乎 好聲色乎 好弓馬乎 好君子乎 好小人乎 所好在是 而存亡繫焉 苟能一日惕然警悟 奮然致力於學問之上 忽然有得於明新之內 則明新之內 萬善具在 百化由出 舉而措之 國可使均也 民可使和也 危可使安也 約而存之 鑑無不空 刑無不平 思無邪焉 伏願殿下 必以正心爲新民主 修身爲取人之本 而建其有極 極不極 則國不國矣

42) 《南冥集》〈戊辰封事〉249쪽

“爲治之道 不在他求 要在人主明善誠身而已 所謂明善者 窮理之爲也 誠身者 修身之謂也 一所謂敬者 整齊嚴肅 惺惺不昧 主一心而應萬事 所以直內而方外 孔子所謂 修己爲敬者 是也 故非主敬 無以存此心 非存心 無而窮天下之理 非窮理 無以制事物之變”

43) 《南冥集》〈戊辰封事〉250쪽

44) 《南冥集》〈戊辰封事〉255쪽 “不明君德而求制治 猶無舟而渡海 祇自淪喪而已”

그렇다고 하여 임금이 홀로 정치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신하들의 보필이 절실하다 그것은 큰 장마비를 내려 타들어 가고 목마른 듯한 형세를 바로 잡기 위해서도 “반드시 세상의 운세를 걸머질 뛰어난 보좌를 얻어서 서로 공경하여 한 배를 탄 듯 함께 하여야만”⁴⁵⁾ 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훌륭한 인재를 얻어야만 德化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이다 훌륭한 인재를 얻는 것 또한 군주의 일이고, 이것 역시 군주가 몸을 닦음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몸이 닦이지 않으면 자기 마음속의 저울과 거울이 없으므로, 선악을 분별치 못하여 사람을 쓰고 버리는 데 실수하게 되며, 옳은 인재를 쓰지 않으면 군자는 초야에 있고, 소인이 나라를 마음대로 하게 되기 때문이다⁴⁶⁾ 사실 남명이 극렬하게 비판하였던 척신정치의 문제도 소인이 나라를 마음대로 함에서 말미암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소인들을 등용한 것도 다름 아닌 군주였다 따라서 문제는 군주가 크게 성을 내어 하늘의 기강을 한 번 떨쳐 순임금이 四凶을 제거하던 것과 공자가 少正卯를 배던 것과 같이 하면⁴⁷⁾ 해결될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이같은 남명의 개혁론을 ‘聖君論’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명은 이를 ‘君義’라고도 요약하였다

2) 士(선비)의 역할과 남명의 현실참여

부정적 현실의 원인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군주 한 사람에게 달린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남명을 포함한 士(선비)의 역할이 무시될 수는 없다 사는 임금의 덕화를 펼치기 위한 보좌로서, 그리고 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명은 거의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은거생활을 하였다 또한 스스로를 處士라고 하였다 처사란 정치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향리에 묻혀 지내는 산림학자를 말한다 15세기 말엽부터 50여 년간이나 지속된 사화라는 정치적 환경은 사림 사회에 출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기풍을 조성하게 했다

이들 처사형 지식인들, 곧 사림세력은 선조의 즉위와 더불어 척신정치가 종결되고 사림들이 정국을 주도해 가면서 점차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뉘어 진다 사화가 종료된 명종 대 후반 이후에 정국을 낙관적으로 인식하여 현실정치에 참여하는 집단이 생겨나는 반면, 현실정치를 여전히 모순과 비리에 가득 찬 것으로 파악하여 계속해서 은거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⁴⁸⁾ 퇴계가 당시의 정국을 낙관하

45) 위 책, 250쪽

46) 위 책, 251쪽

47) 위 책, 253쪽

사홍은 순 임금에 의해서 제거된 共工, 驩兜, 三苗, 鯀을 말하며, 소정묘는魯나라 大夫로 政事를 어지럽히다 공자에게 죽음을 당하였다

였던 것과는 달리, 남명에게 있어서 현실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부정적인 현실은 곧 道가 행해지지 않는 시대였으니 은거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남명은 자신은 물론이고, 선비들의 出仕를 비판하였다 그것은 역사상에 서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사가 時勢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가볍게 출사함으로써 자신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화가 사람에게까지 미침을 안타까워했기 때문이다⁴⁹⁾ 그리고 金宏弼과 趙光祖의 경우도 시세를 판단하는 선견지명이 부족하여 화를 당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⁵⁰⁾ 당시의 시대가 출사할 만한 시세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남명은 은거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듯이 남명의 은거는 노장적 은둔과는 다르다 즉, 벼슬 길에 나아가지 않았던 일은 노장적 은둔이 아니라, 나가서 왕도정치를 실현할 만한 때를 기다리며 은거하고 있었던 것이다⁵¹⁾ 남명의 은거는 능력과 의지를 가졌음에도 그것을 마음껏 펼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저항이었다 남명은 이 세상을 소생시키려는 의지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음을 그의 문집 곳곳에서 내비치고 있다 명종을 만난 것도 그러하였고, 더욱이 현실에 대한 극렬한 비판 자체가 그것을 역설적으로 말해 준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것이다 이리함에 民生의 고초를 생각하고 깊이 탄식하고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이미 그릇되어 버린 참담한 현실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에서는 그의 재능이 쓰일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은거가 아니라 적극적인 현실참여의 또 다른 방법이었다 따라서 남명은 백성의 대변자로서 백성들의 고초를 생각하고 '이 세상을 소생'시키려는 강렬한 의지를 내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식인의 사명을 직접 실현할 수 있는 방도는 오직 군왕의 '밝은 해'를 기대하는 길뿐이었다⁵²⁾ 다시 말해 선비가 이 세상을 소생시키려는 강렬한 의지를 가졌더라도 밝은 해인 군주가 士의 몸을 비취주지 않는 한 선비의 의지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개혁에 있어서 사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군주에 종속된 것이었다 남명의 의지와 능력은 사실상 道가 행해지는 세상, 성군이 위에서 덕화를 베풀 때에나 펼쳐질 수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시대적 또는 유학자로서의 남명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여기서도 남명의 개혁론이 '성군론'에 입각하고 있음을 잘 볼 수 있다

48) 신주백, 앞의 논문 20쪽

49) 《南冥集》〈言行總錄〉182쪽 “先生 惜世之君子出爲時用 要做好事 事敗 身僂貽禍士林者 正坐見幾不明 相時不審”

50) 《南冥集》〈與吳御史書〉147쪽 “前日寒暄孝直 皆不足先見之明 況我與君輩乎”

51) 이상필 1998 〈남명학과의 형성과 전개 -사상과 학맥의 추이를 중심으로-〉 57쪽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52) 《南冥集》〈次徐花潭韻〉99쪽 “要把丹心蘇此世 誰回白日照吾身”

3) 실천적 실용적인 입장

남명의 현실대응의 한 특징은 실천적·실용적인 입장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다양한 학문영역을 두루 섭렵하고 있었다는 점이나, 理氣論에 대한 관심의 미약함, 나아가서는 주자의 성리학만을 전부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지적 등과도 일맥상통한다⁵³⁾ 남명은 당시의 선비들이 性理를 논하는데 세월 가는 줄을 모르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즉, “세상의 학문한다는 사람들이 생활의 절실한 문제는 버려 두고 하늘의 이치만 논하고 있다”(언행총록)고 하여 이기론에 치우친 당시의 土風을 통렬히 비판하기도 하였다

요즘 선비들은 손으로 물 뿌리고 비질하는 절도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천상의 이치를 말하는데, 그들의 행실을 공평히 살펴보면 도리어 무지한 사람만도 못하다⁵⁴⁾

오늘날의 폐단은 흔히 높고 먼 것에 힘을 쓰고 내 몸에 절박한 병을 살피지 못하는 자가 많다 성현의 학문이란 애초부터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것이 아님에도 엉뚱하게 이것은 버려 두고 갑자기 성명의 오묘한 이치를 엿보고자 한다면 인사에서 천리를 밝히려는 것이 아니며, 성을 밝혀 명을 알려고 하면서 孝悌에 근본을 두지 않는 것이다 비유컨대 큰 저자거리를 다니면서 진기한 보화를 구경하는 것과 같으니 종일토록 거리를 오가며 공연히 그 값만 논할 뿐으로 끝내 자기 물건이 되지 않는 것이다⁵⁵⁾

다시 말하면 이기의 틀로는 현실의 모순구조를 적절히 읽어낼 수 없으며, 따라서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서서 이기의 空論을 실천성이나 실용성과 연결되지 않는 공허한 것으로 비판하고 오히려 이러한 공론이 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나타날 것임을 우려하였다

時俗이 숭상하는 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나귀 가죽에 기린의 모형을 뒤집어 씌운 것 같은 고질이 있다 온 세상이 모두 그러해 感世誣民하는 데 급급하고 있으니, 크게 어진 이가 있더라도 구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실로 斯文의 宗匠인 사람이 오로지 上達만 주로 하고, 下學을 궁구하지 않아 구제하기 어려운 습속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공은 지금 이 폐단을 구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⁵⁶⁾

53) 이러한 지적은 남명 연구자들에 의해서 자주 언급되어 왔다 남명의 다양한 학문적 경향과 주자의 성리학에 대한 생각 등은 申炳周의 앞 논문에 잘 정리되어 있다

54) 《南冥集》〈與吳御史書〉 147쪽 ‘君不察時土耶 手不知西掃之節 而口談天上之理 夷考其行則反不如無知之人’

55) 《南冥集》〈南冥先生編年〉 27년 갑신조 (박병권, 1997 〈남명 조식의 정치사상과 사상사적 위치〉 《정신문화연구》 제20권 제3호 178쪽 재인용)

“今日之弊 多務高遠 不察切己之病 聖賢之學 初不出於日用常行之間 如或舍此而據欲窺性命之奧 是不於人事上求天理 盡性知命 不本乎孝悌也 譬如遊通衢大市 見珍玩奇寶 終日上下衢街而空談其價 終非自家物也”

즉,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학문추구, 관념론적인 논의가 성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는데, 사문의 종장이란 다름 아닌 퇴계를 지칭한 것이다 이것은 곧 퇴계의 理氣論인 학문적 경향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비판은 그에게 준 편지에서도 그대로 전개된다

요즘 공부하는 자들을 보건대, 손으로 물 뿌리고 비질하는 절도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天理를 담론하여 헛된 이름이나 흠쳐서 남들을 속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도리어 남에게서 상처를 입게 되고, 그 피해가 다른 사람에까지 미치니, 아마도 선생 같은 장로께서 꾸짖어 그만두게 하시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⁵⁷⁾

따라서 학문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敬義'를 전제로 한 反躬實踐에 궁극적 목표를 두어서 性命·天理와 같은 '上學'보다는 日常動作과 같은 '下學'적인 측면에 치중하였다⁵⁸⁾ 이같은 점에서 남명의 학문을 '實行하는 학문'으로서 實學이라고도 하였다 그래서 '虛를 경계하고 實에 힘쓰는' 학문태도는 남명의 실학사상에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한다⁵⁹⁾ 이같은 점에서 남명의 '실학'은 이후 조선후기 실학사상의 연원으로서 까지 확대 해석되기도 한다⁶⁰⁾ 그러나 남명이 강조하는 실천·실용성을 실학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청나라에서 들어온 고증학과 서양의 과학정신에 입각한 조선후기의 특정한 학풍으로서의 '실학'과는 다른 것이다 말하자면 남명의 실학은 이기론으로 대표되는 "공론에 대한 대립적 의미를 가진 친근한 실제적 학문"이라는 것이다⁶¹⁾ 따라서 이같은 '실학'의 강조는 당시 유학자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던 바⁶²⁾라는 지적은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남명은 비판과 실천 실용적인 학문을 통해 당시의 현실에 적극 참여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것이 바로 남명의 현실대응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실천이란 앞에서 언급한 개인적으로는 修己와 修養으로 나타나겠지만, 사회적 정치적으로는 國政에 대한 비판과 대안의 제시, 民生에 대한 관심으로 등으로 구체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남명이 개혁의 중심적인 대안으로 제시한 '성군론'도

56) 《南冥集》〈與吳子強書〉159-60쪽 “熟看時尙 癩成麟植驢鞵 渾世皆然 已急於惑世誣民 雖有大賢 已不可救矣 此實斯文宗匠者 專主上達 不究下學 以成難救之習 公今不可不知此弊之難救矣”

57) 《南冥集》〈與退溪書〉135쪽 近見學者 手不知洒掃之節 而口談天理 計欲盜名 而用以欺人 反爲人所中傷 害及他人 豈先生長老無有以呵止之故也

58) 이수건 앞의 논문, 204쪽

59) 갈영진 앞의 논문

60) 권인호 앞의 논문

61) 정우락 앞의 책, 289쪽

62) 정우락 앞의 책, 290쪽 참조 정우락은 그 구체적인 예로서 李珥의 《擊蒙要訣》의 다음 내용을 들고 있다 “所謂學問者 亦非異常別件物事也 皆於日用動靜之間 隨事各得其當而已” (《栗谷全書》〈擊蒙要訣〉)

이같은 실천·실용성의 궁극적인 귀결점이었다고 생각된다

5. 의의와 한계

남명의 현실인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가지는 의의와 한계가 무엇인가 이것은 남명이 얼마만큼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해결방안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우선 남명의 현실인식은 상당히 정확했고, 이를 바탕으로 그의 출처 또한 적절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현실은 오랜 척신정치로 국가 기강이 크게 문란해졌고 이에 국역체계는 파탄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으며, 군역 자원은 크게 감소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폐단의 여독이 사림이 정국을 주도해 가던 선조 년간에에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다 남명은 이러한 현실을 낙관하지도 방관하지도 않았다 그는 결코 세상을 등진 은둔군자였던 것이 아니라 상소와 진언을 통해 時弊를 극론하고, 임금을 격려하여 성군이 되게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남명에 대한 다음과 같은 史官의 평가는 남명의 출처를 적절하게 잘 드러내어 주고 있다

당시 遺逸에 假託하여 실제 學德을 갖추지 않고 한갓 虛名으로 盜名欺世하는 자가 많다 그러나 植은 持身修潔하여 초야에 묻혀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으나 그 명망이 자연 조정에 전달되어 관직이 누차 제수되었으나 安貧自樂하여 끝내 出仕하지 않으니 그 뜻 가상하다 그러나 植은 결코 세상을 잊는데 과감하지 않았다 陳疏抗義하여 時弊를 極論함에 辭懇義直했으며, 傷時憂亂하여 나의 임금을 明新의 경지에 놓고 風化를 왕도의 극치에 두려고 했으니 그 憂國之誠이 지극하다 아, 평소 뜻한 바를 임금 앞에 다 개진하고 끝내 處士로서 일생을 마쳤으니 그 마음은 충성하고, 그 절의는 높다 하겠다⁶³⁾

아무튼 당대의 현실에 대한 남명의 비판은 준엄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그의 부정적 현실인식은 현실의 부정이 아니라 사실은 그만큼 개혁이 절실함을 역설한 것이기도 하였다 특히 향리망국론은 이후의 사회 개혁론자들에 의해서 계승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인식과는 달리 남명의 개혁론은 구체성과 현실성을 가졌다고는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현실인식의 정확성과 비판의 엄정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추상적인 측면이 강하다 예컨대, 향리망국론을 제기했지만, 그것을 개혁하는 방법은 '군의 위엄'에서 찾고 있다 "남

63) 《明宗實錄》 권 19 명종 11년 11월 경술조

명은 학문에 있어서도 實見이 없고, 疏章에도 經濟之策이 없다 비록 그의 政見이 세상에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 지는 미지수이다⁶⁴⁾고 한 울곡 이이의 지적은 비록 학문체계와 정견을 구체적인 저술로 남기지 못한 것에 대한 貶論⁶⁵⁾이라 하더라도 疏章에 經濟之策이 없었다는 지적은 곧 남명의 개혁론이 구체성과 현실성을 가지지 못하였음을 적절하게 지적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은 何崙⁶⁶⁾이라던가 金駟孫⁶⁷⁾ 등 사림계 선배들의 개혁론, 또는 16세기 특히 민생문제와 관련하여 민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있었으며 남명 또한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었던 貢納制에 대해 전개되고 있던 개혁의 방안 등과 비교할 때 보다 분명해 진다 여기서는 공납제의 개혁에 대한 문제를 예로 보기로 한다

貢納制는 선초부터 제도적 미비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었고, 16세기에 이르러서는 防納의 폐단이 심화되어 갔다 이같은 문제는 제도의 미비 때문이었지만, 이것은 사실 수령과 향리, 그리고 중앙 권세가의 牟利行爲에서 더욱 심화된 것이었다 남명의 향리망국론의 문제는 바로 이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방납에 있었다 이같은 방납제의 개혁을 주장하였던 것은 梁誠之였고, 이후 金宗直, 趙光祖 등의 사림계열 관료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들에 의해 추진된 공납제 개혁의 방향은 '改貢案'과 '杜防納'이라는 두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17, 18세기를 거치면서 大同法으로 귀결되어 간다⁶⁸⁾ 이같은 공납제의 개혁이 다름 아닌 제도의 개혁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남명이 국왕의 위엄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과는 거리가 있다

남명에 대한 이같은 평가는 사실 남명이 행정가가 아니라 정치가였고, 정치가라기 보다는 유학자였고, 국정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재야의 지식인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명이 자신의 학문체계와 政見을 구체적인 저술로 남기지 못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남명의 개혁론에 대한 한계를 접어들 수는 없다 앞서서도 줄곧 이야기해 왔지만, 남명의 개혁론의 근본은 철저히 '聖君論'에 입각하고 있다 이러한 성군론은 조광조의 至治主義에 입각한 王道政治에 접맥된다 이같은 개혁론은 사실 위험한 것이다 현실의 군주는 성군이 아니었고, 군의 수양을 통한 왕도정치 실현은 우선 군주 자신이 수용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조광조의

64) 《栗谷全書》 권 29, 《經筵日記二》 선조 5년 정월조

65) 이수건 1982 앞의 논문, 214쪽

66) 《浩亭集》 권 2, 《請祛民弊啓》 하륜은 이 계에서 당시의 폐단을 유형화하여 적시하고, 민본적 원칙에 의거하여 수령과 토호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과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병련, 앞의 논문, 164쪽)

67) 이수건 1998 <탁영의 정치 사회사상과 개혁안> 참조 (《탁영 김일손의 문학과 사상》,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68) 고석규, 1985 <16,17세기 공납제 개혁의 방향> 《한국사론》 12

왕도정치의 실패는 다름 아닌 中宗의 반발 때문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남명의 성군론은 이러한 점에서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

물론 남명은 성군만을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비취진다 그것은 우선 〈軍法行酒賦〉에서 내보인 한나라 劉章과 같은 위엄 있는 군주의 출현을 통해 정치기강을 일거에 쇠신하고자 한 것에서 추측된다 이것은 한나라 고조의 손자였던 유장이 呂太后가 정권을 마음대로 천단함으로 군법에 의지하여 여씨를 제압한 일을 두고 쓴 것인데, 실은 文定王后의 집정을 은근히 비판한 것이다 즉, 16세기의 위기상황을 한나라의 위기상황과 비교하면서, 유장과 같은 결단력 있는 군주의 출현을 기대한 것이다 유장은 결코 성군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것은 차선책이었다⁶⁹⁾ 따라서 〈杏壇記〉에서는 다시 仁義에 기반한 왕도정치를 주장하였던 것이다⁷⁰⁾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해결책은 여전히 군주의 문제로 귀결된다

다른 한편 현실 극복의 한 방법으로 제기되는 것이 民巖의 문제이다 말하자면 민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에서, 남명이 “민을 역사의 주체적 세력으로 인식⁷¹⁾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현실정치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민에서 찾는 “혁명성의 내포”,⁷²⁾ 또는 “역성혁명의 논리⁷³⁾”라기 보다는 유교의 民本思想에 철저한 것이며, 이를 통해 그 같은 현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임금을 경계하는 것에 보다 큰 비중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民巖이라는 말이 “왕은 백성들의 험함을 돌아보고 두려워하여야 한다⁷⁴⁾”고 하였듯이 왕을 경계하는 논리이지 민을 주체로 보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같은 민본사상은 “나라의 흥망은 민심의 苦樂에 있다⁷⁵⁾”거나, “君主는 마땅히 백성을 보전하는데 마음을 두어야 한다⁷⁶⁾”는 것과 같이 여말선초 유학자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데올로기였다⁷⁷⁾ 따라서 〈民巖賦〉에서 구체화된 민본사상은 남명만의 생각이 아니라, 남명에 의해 보다 구체화되고 강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암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근본문제임은 퇴계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

69) 정우락, 앞의 책 125-6쪽 참조

70) 정우락, 앞의 책, 135쪽 참조

71) 정우락, 앞의 책 315쪽

72) 신병주, 앞의 논문, 84쪽

신병주는 남명의 “민본사상은 역사상 줄곧 수단으로만 취급하였던 민에 대하여 그 주체적 지위를 인정하고 민을 기반으로 하여 척신세력이나 부패한 관리를 추방하고 公道論을 무기로 등장하는 사림세력의 입지점을 넓히는 혁명성을 내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73) 이상필, 앞의 논문, 62쪽

74) 《書經》〈召誥〉“嗚呼 有王 雖少 元子哉 其不能誠于小民 今休 王不敢後 用顧畏于民罔”

75) 《태종실록》 권 18 태종 9년 10월 을축조

76) 《태종실록》 권 13, 태종 7년 6월 계미조

77) 김훈식 1986 〈여말선초의 민본 사상과 명분론〉 《애산학보》 4, 애산학회

가 있다⁷⁸⁾

〈民巖賦〉의 중심은 “임금을 받들기도 하지만 나라를 뒤엎기도” 하는 백성이 아니라, 사실은 군주가 이러한 백성의 힘을 거울삼아 스스로를 살펴야 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성군론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군론을 중심으로 하는 남명의 현실 대응론을 현실정치의 모순에 대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제시”⁷⁹⁾한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남명이 민생을 생각하고는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였지만, 지식인으로서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도는 없었던 것은 모든 대안이 오직 군왕을 통하는 길뿐이었기 때문이다 남명에 있어서 군왕 곧 성군은 “이 세상을 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밝은 해”였다⁸⁰⁾ 여기에 남명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명의 성군론은 제도개혁을 통해 조선후기의 사회모순을 극복하고자 했던 실학파의 개혁론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남명은 군주국가의 체제를 뛰어넘을 수 없는 시대적인 조건 아래에서 살았고, 왕도정치를 이상으로 삼고 있던 유학자였다 이러한 점은 〈聖學十圖〉와 〈戊辰6條疏〉에서 성학을 두텁게 하여 다스림의 근본을 세울 것을 건의하였던 퇴계와 다르지 않다 유학자로서의 남명과 퇴계가 성군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따라서 남명의 한계는 그 개인의 한계가 아니라 시대적 역사적 한계라 할 수 있다

6. 맺음말

오늘날 남명에 대한 평가는 비판적 실천적 지식인으로, 그의 학문과 사상은 민을 주체로 한 혁명성의 내포 또는 실학적 단서를 연 것으로까지 이해되고 있다 이 연구는 남명에 대한 이같은 평가를 역사학의 관점에서 재검토해 보고자 한 것이다 그것은 이같은 이해가 주로 문학, 교육학, 또는 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남명의 시대와 남명의 경제적, 신분적 또는 학문적인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으며, 나아가서는 그의 주장이 당시의 유학자들과의 차별성과 역사적 맥락도 아울러 검토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필자의 능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어느 하나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다

16세기의 역사현실은 남명의 지적과 같이 암담한 것이었다 그것은 민의 流亡이라는 문제로 나타났고, 이것이 民巖이 되어 나라를 뒤엎거나 혼란케 할 수 있는

78) 주 10) 참조

79) 신병주, 앞의 논문 94쪽

80) 주 52) 참조

근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같은 민의 유망은 사실 봉건정부나 훈구세력의 가렴주구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었다 재지사족 또는 사림과 관료들이 대체로 중소지주로서의 경제적 기반을 확보·확대해 가는 과정에서도 말미암은 것이었다 남명은 곳곳에서 궁핍한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의 경제적 처지가 농민과 비슷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남명 역시 기본적으로는 중소지주적인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평생동안 학문에 몰두할 수 있었고, 山海亭·鷄伏堂·雷龍亭·山川齋 등을 지어 자신을 함양하고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신분적 처지에 있어서도 남명은 농민이 아니라 농민을 지배하던 지배층이었다 남명은 노비와 농민에 대해 온정적인 눈길을 자주 보내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남명이 농민적 또는 민중적인 사유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말하자면 지배의 대상이었던 농민이 도탄에 빠진 것을 안타까워하고 이를 구제하고자 노력한 지식인이었다 학문적으로는 老莊思想과 陽明學, 불교뿐만 아니라 雜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남명은 어디까지나 유학자였고 성리학자였다 다만 性理에 깊이 천착하기 보다는, 이것의 정치·사회적 실천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남명에 대한 연구는 이같은 전제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명은 당대의 현실을 총체적 위기에서 오는 절망적인 것으로 보았다 나라의 근본도 망했고, 天心도 民心도 다 떠나버렸다고 했다 그래서 재주가 周公과 召公을 겸하고 지위가 정승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어찌 해 볼 도리가 없다고 하였다 이같은 총체적인 위기는 물론 척신정치의 폐해나 관리들의 안일과 탐학, 國脈을 결단내는 향리들에게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러나 남명은 이것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파악하지는 않았다 총체적인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오직 군주 한 사람에게서 기인하는 문제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같은 총체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남명은 그 방안을 '획기적인 변통' 곧 개혁에서 찾고 있었다 그러나 남명의 개혁론은 자질구레하게 형벌 같은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군주의 한 마음에서 찾고 있었다 그래서 군주가 진실로 어느 하루 깜짝 놀라 깨달아 팔을 걷어붙이고 학문에 힘써 홀연히 덕을 밝혀 聖君이 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것은 위기의 원인을 군주에게서 찾았던 남명에게는 당연한 귀결이었다 아무튼 우리는 이같은 남명의 개혁론을 聖君論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성군론에서 士(선비)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군주에 종속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비는 出處를 명확히 해야만 했다 남명은 평생을 은거했다 이것은 老莊적인 현실도피가 아니었다 또한 남명은 스스로 이 세상을 소생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의 능력과 의지는 오직 군주의 밝은 해를 통해서만 발휘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같은 선비의 역할은 성군론

에서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선비가 오직 군주의 밝은 해만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민의 대변자며 지식인으로서의 선비의 역할은 현실의 모순구조를 적절히 읽어 내고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性理·天理와 같은 虛學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실천적인 '下學'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남명학에서의 실용·실천성은 理氣論의 공리공담에 대응되는 의미에서는 '實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조선후기의 실학과는 엄연히 역사적 성격을 달리한다 실용·실천의 구체적인 모습은 개인적으로는 修己와 修養으로 나타나지만, 사회·정치적으로는 國政에 대한 비판과 民生에 대한 관심 등으로 나타난다 남명은 이를 통해 현실에 적극 참여하고 있었고, 이것이 곧 실천이고, 실학인 셈이었다

아무튼 남명이 본 현실은 정확했고, 이에 비판은 엄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대응책, 곧 성군론에 입각한 개혁론은 구체성과 현실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를 가진다 다시 말해 현실인식의 정확성과 비판의 엄정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개혁론은 다분히 추상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조선후기 실학파들과는 물론이고, 士林系 선배들의 개혁론과 비교해 보아도 그러하다 남명의 성군론은 趙光祖의 至治主義에 입각한 王道政治에 접맥된다 군주의 수양을 통한 왕도정치는 실현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행에 옮겨진다 하더라도 종종과 조광조의 관계에서 보듯이 그것은 위험한 것이었다 현실의 군주는 성군일 수 없었고, 왕도정치의 실현은 무엇보다 군주 자신이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남명은 성군론만을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성군이 아닌 劉章과 같은 위엄 있는 군주의 출현을 기대한 것이라던가, <民巖賦>에서 제시된 민의 역할이 그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서 일부의 연구자들은 남명학이 가지는 혁명성을 찾고자 한다 그러나 <민암부>의 중심은 임금을 받들기도 하고 나라를 뒤엎기도 하는 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주가 이를 거울 삼아 스스로를 살펴야 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이것은 성군론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남명에게 있어서의 군주는 이 세상을 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밝은 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암부>는 당시 유학자들이 가지고 있던 民本思想을 보다 강조하고 구체화함으로써 군주가 성군이 되어야 함을 역설한 것이다 사림세력이 훈구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생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고 이들을 기반하여 그들의 입지점을 확대하고자 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남명 또는 사림파의 민본사상이 민을 역사의 주체세력으로 보고, 또 이를 기반으로 하여 그들의 입지점을 넓히는 혁명성을 내포했다는 주장은 지나친 해석이다

아무튼 16세기 사회모순에 대한 남명의 개혁론은 성군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이같은 개혁론은 제도개혁을 통해 조선후기의 사회모순을 극복하고자 했

던 실학파의 개혁론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이것은 남명이 군주국가의 체제를 뛰어 넘을 수 없는 시대적 조건 아래서 살았고, 왕도정치를 이상으로 삼고 있던 유학자였다는 점에서 피할 수 없는 한계였다